용학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화엄경, 망망대해서 잡은 나무토막 같은 것"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14일) · 주간

제1038호 2015년 4월 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바람을 마주해 먼지를 털면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미움으로 대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온다.

불교 국제구호 역량 '하나로'

'지공회' 등 9개 NGO, 23일 국제개발협의회 출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곳이 모여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해외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공동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3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단체 선출, 정관 ·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임원단체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회장)을 주축으로 지구촌공생회(운영위원장), 위드아시아(감사), 더프라미스(교육/연구분과장), 나마스떼코리아(기획/홍보분과장), 아름다운동행(교류/협력분과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엔지오비유디, 월드머시코리아, 젊은부처들은 회원 단체로 참가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불교계 기관은 약 28곳.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체간 협력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를 거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2006년 첫 논의 이후 약 9년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그동안 사업 노하우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부와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과 자원배분 등에서도 불교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활동 지역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동질성을 기반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한다면 동일 사업에 대해 불교계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실무자 교육, NGO 봉사단 통합교육, 신규활동가 발굴 · 양성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해외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9개 단체가 해오던 사업방식을 조율해야 할 필요도 있을 뿐더러 공동 의제 발굴, 진행에 있어서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조계종복지재단 회장 단체
국제협력사업 조사 등 진행
단체 질적 · 양적 성장 기대

실제로 해외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타종교의 경우 진행상 어려움을 종종 토로하기도 한다. 사업참여 동기 등이 각 단체마다 다르고 재원 조달 능력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종환 사무국장은 "각기 활동해오던 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차츰 논의를 넓혀나가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가입하지 않는 불교계 국제개발 단체들의 활동 역시 장려하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9개 교계 NGO 단체들이 모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3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조계종 노동위 오체투지 "세월호 인양을"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3월 26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五體投地)'를 진행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 혜조 스님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륭전자 해고노동자, KTX 해고 승무원 등 시민들도 동참했다. 혜조 스님은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안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실종자 수습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세월호를 인양해 이 끔찍한 참사를 마무리 짓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저소득 어린이에게 자비의 손길을

동행 · BTN, 봉축 모금 캠페인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BTN불교TV(사장 구본일)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봉축 모금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전국 1천9백여 곳의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을 희망하는 불자는 각 사찰에 비치돼 있는 '모금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시함(불전함)에 넣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보시금은 국 · 내외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 ·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봉축 모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의 자비나눔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뜻 깊은 기부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02)737-9595, (국 민 은 행 023501-04-224398)

광복 70년 남북불교 합동법회 성사 기대

대표자회담, 26일 中 심양서… 평화대회 초청엔 北 사의

천태종도 28일 협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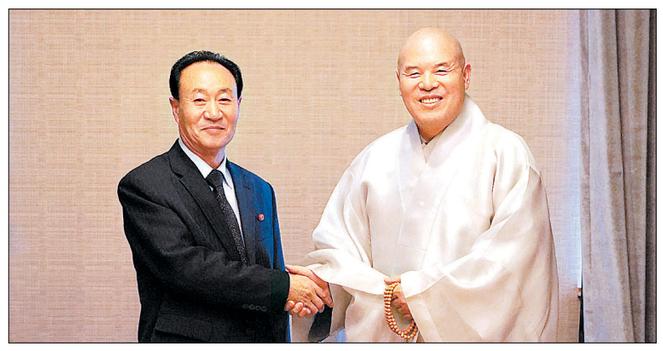
남북불교도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남북합동법회를 추진한다. 장소는 금강산이나 개성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3월 26일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남북불교대표자회담'을 개최했다.

본회의에서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수린 위원장이 선출된 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면서 "남북불교의 단합을 위한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은 "올해가 조국해방 70돌, 615공동선언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니만큼 남북불교가 손을 맞잡고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불교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에 맞춰 범종단적 차원으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즈음해서 남북동시법회를 갖는 방안도 협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은 3월 25일 중국 심양에서 만나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자승 스님과 강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또한 남북 불교계는 남북관계의 정세발전 추이에 따라 남북불교문화재의 보존보수 및 공동전시, 불교유적의 공동발굴 및 조사연구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어 조계종은 올해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남북합동법회를 의미있게 추진하자고 제의했으며, 특히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에 조불련 대표단 초청의사를 담은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불련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회담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을 비롯한 실무인원이 남측에서 참석했고, 조불련에서는 강수린 위원장, 차금철 서기장, 조불련 부장 혜안 스님, 김철용 조불련 평양시 신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총무원장 춘광)도 3월 23일 선양에서 조불련을 만났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강 위원장은 10월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기념해 평화통일기원대법회를, 11월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914주기 열반 다례재를 영통사에서 여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8호 INDEX

시방세계 5
사찰 봄꽃 축제
프로그램 '다채'
광복 70년 불교 70년 12·13
한국불교 포교 70년
화엄만다라 16·17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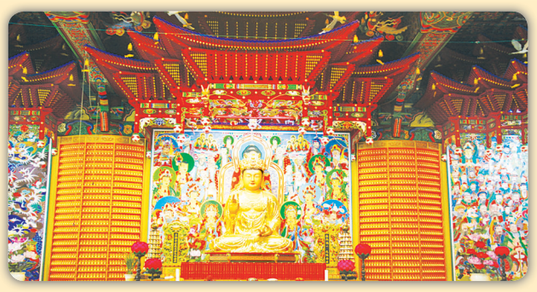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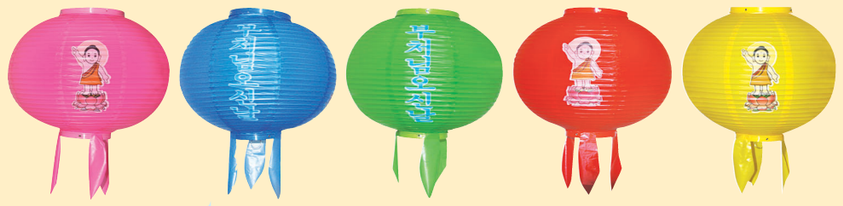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